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조용만 전 조폐공사 사장



조용만 사무총장

조용만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60)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내정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6일 조 전 사장이 체육회 사무총장으로 낙점됐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 사무총장은 2월 6일 임기를 마쳤고, 그동안 사무총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전남 순천 출신의 조 전 사장은 순천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등을 거친 재정 전문가다.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뒤 2018년부터 제23대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2월 5일 퇴임했다. 체육회는 신임 사무총장이 인사, 조직관리를 비롯해 체육회 재정과 행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정지욱 기자

사령탑 공석인 KB스타즈 구단 단독 'FA 영입' 추진

윤예빈·강이슬 등 FA시장 대어 넘쳐

2020~2021시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자프로농구(WKBL)에선 1일부터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열렸다. FA 영입은 전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요소다. 배혜운, 윤예빈, 김단비(이상 용인 삼성생명), 강이슬, 고아라(이상 부천 하나원큐), 강아정, 염유아(이상 청주 KB스타즈), 이경은(인천 신한은행), 김소니아(아산 우리은행) 등 즉시전력감 선수들이 대거 FA 시장에 나오면서 6개 구단은 영입 희망 선수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0~2021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준우승한 KB스타즈는 FA 영입이 난감한 상황이다. 대개 구단이 감독과 다음 시즌 팀 전력 및 선수단 운영에 대해 논의한 뒤 결맞은 FA 영입을 추진하지만, KB스타즈는 안덕수 감독(47)의 사퇴로 사령탑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KB스타즈 관계자는 6일 "감독 선임은 마무리하고 FA 영입에 나서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일단 구단에서 내부 FA 선수들과 재계약, 외부 FA 영입을 구상하고 선수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독 자리가 공석이라는 점은 외부 FA 영입에서 걸림돌이다. 팀 내 사령탑의 존재감이 절대적인 여자프로농구의 특성상 누가 팀을 맡고 있느냐가 FA 선수들이 계약할 팀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누가 감독으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계약하느냐'는 선수들의 말에 KB스타즈는 난감할 따름이다. 이 관계자는 "좋은 감독을 선임할 테니 구단을 믿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FA 영입에 감독 선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여서 정신이 없다. 그래도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 전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대한체육회, 내달 6일부터 종합형·학교연계형 접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공공스포츠클럽을 공개 모집한다.

선정된 공공스포츠클럽은 법인 설립 기본재산을 비롯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종합형(대도시형: 5종목, 중소도시형: 3종목), 학교연계형(1종목) 중 해당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며 6월 11일(종합형)과 30일(학교연계형) 결과를 발표한다.

대한체육회는 대도시형(인구 20만 명 이상) 13개소, 중소도시형(인구 20만명 미만) 4개소, 학교연계형 36개소 등 총 53개소 신규 클럽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최대 5년간 대도시형 9억 원, 중소도시형 6억 원, 학교연계형 4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은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선수 발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서 169개(대도시형 66개, 중소도시형 45개, 학교연계형 58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북한 "도쿄올림픽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

北, 복싱 등 8개 종목·18장 출전권 반납

코로나19 선수보호 차원 불참 스포츠 남북교류 차질 불가피 외신들 "남북대화 재개에 찬물"

북한이 7월 개막할 예정인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화상회의로 열렸는데, 당시 북한은 "조선올림픽위원회의 지난해 사업총화와 올해의 사업방향을 논의했다"고만 했을 뿐 올림픽 참가 여부는 공표하지 않았다. 북한의 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대회 이후 33년만이다. 양궁, 육상, 탁구, 수영(다이빙), 체조, 레슬링, 사격, 복싱 등 8개 종목에서 18장의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이미 확보했으나 체육성의 이번 결정으로 모든 출전권을 반납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다.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로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와도 무역을 사실상 중단시킬 정도로 국경통제를 지속해왔다.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인해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18자카르타-팔렐방아시아게임에 이은 국제대회 개최식 남북공동입장은 물론 남북 단일팀 구성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19년 집행위원회를 열어 도쿄올림픽 개최식 남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남북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여부 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결정이다. 3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올림픽위원회 총회 모습. 뉴스시

북공동입장과 여자농구, 하키, 유도, 조정 등 4개 종목의 단일팀 구성을 승인한 바 있다.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도쿄올림픽을 통해 트겠다는 의지였으나 희망이 꺾였다.

아울러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도전에 또 먹구름이 크게 드리워지게 됐다. 올 2월 IOC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우선협상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택해 이미 서울·평양 공동유치 계획은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일말의 희망

은 있었다. 남북 체육계가 함께할 절호의 기회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날아가게 됐다.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AFP통신은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발표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도했고, AP통신 및 로이터 통신 등도 "평화협상에 나서려 했던 한국을 좌절시켰다"고 해설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설린저 맹활약'에 다음시즌 외인 고민 가중된 구단들

코로나에 영상만 보고 외인선발 한계 NBA 경력선수 영입 변수 '눈치싸움'



지난해 10월 개막한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6일 최종전으로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큰 탈 없이 팀당 54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플레이오프(PO)에 진출한 6개 팀은 10일부터 챔피언 트로피를 향한 경쟁을 펼친다. 6강 PO에 오르지 못한 4팀은 휴가와 함께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6강 PO에 나서지 못하는 팀들의 고민은

외국인선수 재계약이다. 적지 않은 고민이 뒤따른다. 이유가 있다. 외국인선수 영입 대상자들에 대한 검토 후 미국 등 현지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해외출장은 어려운 형편이다. 영입 대상자들이 뭉개 경기의 편지 영상만으로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번 시즌 외국인선수 선발에 실패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안양 KGC 제러드 설린저(29)의 등장이다. 설린저처럼 화려한 이력을 지닌 선수가 KBL 무대에 뛰어든 것으로 예상한 팀은 없었다. 설린저가 부상으로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미국프로농구(NBA)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한창 나이대의 선수가 KBL이 설정한 몸값에 맞춰 한국행을 결

정한다는 것은 이례적 일이다.

그럼에도 KGC가 설린저 영입에 성공하자 나머지 9개 팀 코칭스태프와 프런트는 다음 시즌 외국인선수 구성을 놓고 고민이 가중됐다. 설린저 같은 선수도 KBL 무대를 노크할 수 있음이 드러난 만큼 기존 외국인선수들과 재계약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다만 여기에는 부담도 따른다. KBL에서 검증된 선수를 포기하고 새 선수를 영입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PO에 오르지 못한 팀들은 외국인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PO에 오른 팀들도 내부적으로는 외국인선수 시장을 두루 살피고 있다. 각 팀이 외국인선수 선발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듯하다. 최홍성 기자 glyong@donga.com



KGC 제러드 설린저(왼쪽)의 등장은 다른 구단들의 외국인선수 영입 기준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왔다.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한 팀들부터 당장 외국인선수 재계약 검토 과정에서 고민이 커졌다. 사진제공 | KBL

이재영-다영 자매 "폭로자에 법적대응"...왜?

폭로 내용과 다른 점 있다...오해 풀기 폭로자 연락두절 대화사과 겨냥 포석 흥국생명 "개인권리 차원 개입 않겠다"



이재영-다영 자매

V리그를 뒤흔든 학교폭력 스캔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월 15일 소속팀 흥국생명으로부터 무기한 출전금지 처분을 받았던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가 폭로자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아직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지만,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흥국생명은 개인권리 차원의 문제라 이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월 10일 최초의 폭로가 나온 뒤 고심 끝에 무기한 출전정지를 결정했던 구단은 그동안 말을 아끼고 있었다. 다만 새 시즌

는 거의 없었다.

일방적 비난이 잇따르자, 구단은 일단 선수 보호를 위해 무기한 출전금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과 소속선수의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다. "징계를 줄 규정이 없다"며 어떤 판단도, 결정도 하지 않았다. 자매에게 사실상 징계를 내린 단계는 대한배구협회 유일하다.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해외에서 시 필요한 국제이적동의서(ITO)도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은 자매가 협회 소속인 근영여중에서 벌 때였다. 협회는 당시 지도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런 과정은 없었다. 또 ITC 발급 같은 선수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 확인 없이 언론 보도만을 근거

로 삼고, 정식 절차마저 밟지 않았다. 소송에서 협회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대표팀 선발은 협회의 고유 권한이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뽑지 않겠다고 한 것은 선언적 의미다. ITC 발급도 마찬가지지만, 만일 법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일이다"고 밝혔다.

자매가 법적대응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폭로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자매는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온라인으로 폭로한 뒤 모든 연락을 끊었다. 당사자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터라 사과할 길은 막혔다.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법적대응 카드를 꺼냈다. 법의 힘을 빌려 이들을 불러낸 뒤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기회를 갖고 싶다는 뜻이 담겨있다.

사법기관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자매는 정말로 선수생명을 걸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